

지역 소식통

김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올해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분기별 사전교육을 추진해 업체 및 환경기술인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위반을 감소, 기업의 환경관리 대처 능력을 제고하여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도장 및 기타폐막처리업, 특장차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4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자율점검, 우수, 일반 및 중점관리로 등급으로 나누어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유무, 사물인터넷, 적산전력계 등 측정기기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 선정 기준 완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 4인 가구 기준 급여액은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으로 늘어났다.

변경된 재산 기준은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에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을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24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제, 아동친화도시인증 한걸음 더'

아동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김제시는 24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찬준 부시장을 비롯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7명, 각 실과소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개월 간 진행한 연구 최종 보고다. 주요 내용은 그간 추진상황보고,

아동친화도시조성 4개년 추진계획,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6대 영역에 대해 김제시의 아동,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친화도 설문조사,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아동 친화 관련 일반현황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향후 4개년 아동친화도시 추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유니세프한국

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아동 권리현황조사 및 아동정책 4개년 계획 수립해 2023년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이찬준 부시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을 비롯해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인구 증가·기업 유치로 지방세입 증가

자립 준비 청년 10만 원 추가 지원·채무 법률 지원 등

완주군이 2024년부터 변경되는 아동 보호 관련 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24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크게 변경되는 아동보호 업무는 △다담씨앗 통장 가입대상 기준 확대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지원방법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설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아동학대 재판단 확대 및 교원대상 아동학대 제도 보완 등이다.

우선, 다담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신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이 본인 통장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의 1:2비율로 매칭지원

금을 월 10만 원 이내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년부터는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전체로 대상자를 확대해 관내 800명 가량의 아동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0만 원 지원으로 올해부터 자립지원센터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을 의무이수 후 정착금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2회로 분할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향된 50만 원을 매달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시행돼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단다.

특히, 완주군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토대로 관내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채무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 추진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24시간 즉각적인 아동보호 활동을 벌인다.

군 관계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인구증가 효과로 지방세입 증가

완주, 지난해 1174억원으로 2년간 18% 이상 큰 폭 늘어

기업 유치, 인구 증가 효과에 힘입어 완주군의 지방세입이 증가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방세입이 2021년 991억 원, 2022년 1,068억 원, 2023년 1,174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년간 18%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세입이 증가된 주요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다.

재산세는 2023년 1세대 1주택 특례세를 확대 적용 및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관내 공동주택의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증가를 기록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도 관내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과 종업원 급여 총액 등의 증가로 43억원 이상이 늘었다.

완주군은 지방세입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을 2021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난 인구 증가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완주군의 인구는 2021년 말 9만1,142

명, 2022년 말 9만2,422명, 2023년 말 9만7,827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 소멸시대에 완주군은 지난해만 5,405명이 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2021년 기준 1인당 지역총생산(GDP)도 5,739만 원을 기록, 도내 압도적 1위다. 2위 지역(4,040만 원)과 1,7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완주군은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로 세무민원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 친화 세정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 규모와 속도에 상응하는 세무 행정에 더욱 노력을 기울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방세는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지방세정 운영과 군 역점사업 수행의 소중한 재원이다"며 "완주군의 성장을 기반 삼아 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제시는 24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회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보건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 심의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2024년 2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으며,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환류가 필요한 사항과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 등의 내용을 2차년도 시행계획에 추가 반영했다.

심의위원들은 자살시방물,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등 지난해 성과가 좋은 지표들에 대해서는 올해도 열심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부족한 지표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해 기존 수립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상하수도 요금 사이버 창구 개설

요금 조회·납부 실시간 가능

완주군이 올해부터 '완주군 상하수도 요금조회 납부 사이버창구'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있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존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발부된 고지서를 통해서 조회하고 계좌이체 또는 은행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1월부터 연중 24시간 '상하수

도 요금 온라인 사이버 창구'에 접속해 PC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요금 조회·납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이버 창구에서는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계좌 자동이체 신청·해지, 카드 자동결제 신청·해지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군은 창구 개설로 완주군민들의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